

《모순》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 말의 어원은 다음과 같다. 어느 한 장사군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그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요, 그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라고 광고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러보시오.」 이때부터 말이나 행동에서 앞뒤가 맞지 않고 리치상 어긋나는 것을 가리켜 《모순》이라고 표현하였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울지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과 관련하여 떠돌고있는 《방패》나, 《방어》니 하는 꾀변들이 그러한 모순투성이의 녀두리들이다.

내외가 한결같이 지탄했듯이 이번 전쟁연습은 모험적인 북침작전계획에 따라 미군과 남조선군의 수많은 병력과 무장장비들이 동원되어 실전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위협천만만 전쟁연습이었다.

실제로 남조선전선자인 윤석열역적도는 전쟁연습이 한창이던 때에 어중이떠중이들을 끌고 지하갱도인 전신지휘소에 기어들어가 미국의 확장역적실력을 강화하고 《한국형3축체제》능력을 조속히 구비하도록 전력증강을 가

위선의 허물을 쓴 북침전쟁불장난

속화하며 《전략사령부》창설도 빨리 추진하라고 피대를 돌구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자도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와 미국의 확장역적공약이 빈틈없이 리행되도록 공조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니,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전신인 무수행능력을 극대화할수 있도록 노력하라니 하고 있었다.

미국의 확장역적력이나 《한국형3축체제》라는것이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것이라는것은 공개된 사실인진대 《방패》라는 명칭이 과

연 가당한다 하는것이다. 그야말로 《장》을 《방패》라고 하는 자가당착이 아닐수 없다.

전쟁연습기간 떠들던 《방어적연습》이라는 광고도 마찬가지로이다.

《북주적론》과 《선제타격론》에 따라 벌리는 전쟁불장난이 어떻게 《방어》를 위한 군사훈련으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최근 지은자가 발원점을 못하고 제 그림자에도 놀란다

《한국형3축체제》라는것이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것이라는것은 공개된 사실인진대 《방패》라는 명칭이 과



본사기자 김정혁

《그 식이 장식》이라는 말은 남조선정권관을 넘겨둔것 같다.

새 당대표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새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국민의힘》이지만 정권관이 나서서는 전혀 새로운것이 없고 여전히 서로 진흙탕싸움에만 골몰하기 때문이다.

지금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두당사이의 드잡이를 보아도 그러하다.

지난 선거들에서 패한것으로 하여 한동안 수세에 몰려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역적도의 정치적부능과 허접에 대한 민심의 높아가는 비난과 반발을 리용하여 《력대급무능력정부》, 《무능력, 부패인, 부패책의 3무정권》으로 몰아대면서 집권세력과 공계적인 대결에 나섰다.

지난 8월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사무실 이전과 판재개헌 공사를 둘러싼 의혹, 《대통령실사적책용》의혹, 폭우피해와 관련한 부실대응 등 역도의 통치부능행위들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집권세력을 압박해나섰다.

《국민의힘》것들은 그들대로 이전 《정권》시기의 사건들을 《3대안보문란사건》으로 엮어 《신북풍》몰이,

정치보복으로 대응하고있다.

라방의 허물들추기와 내부 와해작전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친윤석열과 이진 당대표 리준석사이의 대결로 란장판은 그 변한 여당의 실태를 까밝히면서 윤석열은 선거기간 리준석의 도움을 받았지만 자기에게 거슬리게 높아졌던 일만 기억하면서 당대표자리에 쫓아냈다. 《윤핵관》들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비윤석열파들을 총동원하고있다.

가마가 술을 보고 검둥아 한다더니 《국민의힘》것들은 재계비내 집안이 된 제 집안골은 당방에 없어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한데 대해 아니꼬와하면 《선거에서 련이어 패한 사람이 당대표까지 거머쥔 것들을 보면 야당의 인물, 대안부재가 심각한 수준인것같다》, 《부패의혹자에게 당의 운명을 거는것은 도박이다》라고 훈시질을 한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처가 경찰조사를 받고있는것을 몰고늘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퇴직법》을 내들고 공세를 하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이 이런 정권관을 두고 싸울판, 오물장이라고 비난단죄하고있는것은 응당하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당리당략을 위해 퍼터지는 정쟁만을 일삼는 위정자들의 추태가 얼마나 눈물사나우면 남조선 각계가 《정치공간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민생외면정쟁 벌리는 여야》라며 침을 뱉는가.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정치진영들사이의 진흙탕싸움은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다는 《정치협오충》을 증대시키고있는것이다.

민심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은 사이비정객들의 말로가 어떻게 끝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허정선

만화 《쟁탈전》



굴종할수록 더욱 오만해진다

요즘 섬나라족발이들이 더욱 오만하게 날뛰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일본이 패망한 날인 8월 15일을 계기로 수상 기시다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아랫것들도 출출이 참배함을 벌리었다.

2015년에 진행된 국제관함식에 전반기인 《속일기》를 내건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과 아시아인민들의 비난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섬나라것들은 올해 11월에 진행될 국제관함식에 남조선도 참가하려고 강박하면서 《베러》라고 코대를 세우는가 하면 남조선이 독도에 대한 해양조사를 하는데 대해서도 용납할수 없다는니, 《다게시마는 일본의 고유령토》이므로 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니 하며 울러베고있다.

그런가 하면 《구도로 약화된 관계를 한쪽의 노력만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에게 강제정용배상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압을 가하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친백배로 사죄하고 배상을 해도 시런치 않을 전대미문의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과거죄악에 대한 리판만 한 사회와 반성도 없이 군국주의부활과 체질적행태에 더욱 광분하는 섬나라것들이야말로 베벤스러움과 후안무치, 남강도적행태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가장 추악한 무리들이다.

문제는 섬나라것들이 어떻게 되어 이렇게 더욱 오만하게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윤석열

역적패당의 매일저자세때문이다.

윤석열역적도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왔기 바쁘게 섬나라에 《투사단》을 파견하여 《관계개선》을 구걸하였으며 기가 있을 때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있다니, 수출규제를 완화해달라니 하고 코가 똥에 당도록 굴복대고있다. 대표적실례로 윤석열역적도는 일제가 패망한 날간의 존엄과 자존심이 표출된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고 개어올렸다.

거기에 일본은 어떻게 대꾸했는가. -남조선이 일본전범기업들의 자산을 강제매각해던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것이

알고계십니까.

통산에 온 새 주인내외가 주점을 차려놓는것을 말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화약내가 물신물신 풍기던 곳에 음식장사가 제대로 되었는데는 몰라도 그레도 터가 좋다는 누군가의 소리에 새 주인들은 기이코 통산을 타고앉아 요란한 주점장사판을 펼쳐놓은것입니다.

아직 식당의 공식간판은 못걸었지만 그레도 영영할거는 따냈는지라 《공정》과 《민생》 등의 광고부터 내걸었다고 합니다.

특십을 잡고 시작한 일이라 그들은 내외는 제손으로 음식감들을 사들이기에 분주하고 도마와 콘로앞에서 비지뚱도 많이 흘리고있답니다.

더운 료리는 열랑, 찬료리로는 회를 선보였는데 운수가 좋아 5년간 열랑과 회로리가 대박을 맞는다면 이보다 더 큰 횡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돈과 재물이면 늘그막에 남의 열차식 부럽지 않다는것이 이들 내외의 속구구입니다.

한껏 부른 기대를 가지고 석열이내 부부는 이상하면 료리사들의 명성까지 떨쳐볼 심산으로 더운 료리에는 《석열탕》, 찬료리에는 《건희》라고 저들의 이름을 따붙였답니다.

그럼 내외가 열성탕 만든 료리를 줘 들여다볼까요.

우선 석열탕입니다.

새로운 탕이라하면 웡탕 멋진 신선로나 곱돌장그릇에 담겨나올 줄 알았는데 주인내외가 좀 구태적인 조상들이 쓰던 낡은 그릇을 《보수》한것에 담은걸 보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 하나하나가 다 전쟁발발의 도화선들이다.

민족에게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불장난이 어떻게 《평화》를 위한것으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 각계층이 《평화》를 해치는 합동군사연습반대! 한미동맹반대!를 강력히 주장하는것은 응당하다.

이처럼 윤석열역적패당이 떠벌이는 《방패》, 《방어》, 《평화》의 나발은 저들의 침략적본성을 가리우고 북침전쟁연습을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한 꾀변이다. 불을 줄기는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미국상전의 꾀된 핵우산을 믿고 초강대국인 공화국과 맞서겠다고 오기를 부리는 윤석열역적패당은 스스로 재앙을 청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정혁

언어논란의 가치

어 언어논란의 가치

어 언어논란의 가치

어 언어논란의 가치

어 언어논란의 가치

어 언어논란의 가치

어 언어논란의 가치

어 언어논란의 가치

어 언어논란의 가치

어 언어논란의 가치

어 언어논란의 가치

어 언어논란의 가치

어 언어논란의 가치

어 언어논란의 가치

어 언어논란의 가치

어 언어논란의 가치

어 언어논란의 가치

통산주점의 특산 석열탕과 권희

《구경탕》이 되고 연약한 《민생》 한데 이걸 어떡합니까. 흑시나가 역시나가 되었습디다.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니 먹다남긴 음식찌꺼기들을 마구 담은것같기도 하고 다른 음식점의 오물들을 받아 섞은것같기도 한게 대번에 구역질이 구역구역 울리입니다.

석열탕의 기본료리감들에서 《정》는 어떻게나 혐하게 깔짚을 당했는지 형태도 없는 《망탕》이 되고 《외교》라는것은 원체 선도가 나쁜 것을 어디서 험잡으로 구입해왔는지

《구경탕》이 되고 연약한 《민생》 한데 이걸 어떡합니까. 흑시나가 역시나가 되었습디다.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니 먹다남긴 음식찌꺼기들을 마구 담은것같기도 하고 다른 음식점의 오물들을 받아 섞은것같기도 한게 대번에 구역질이 구역구역 울리입니다.

석열탕의 기본료리감들에서 《정》는 어떻게나 혐하게 깔짚을 당했는지 형태도 없는 《망탕》이 되고 《외교》라는것은 원체 선도가 나쁜 것을 어디서 험잡으로 구입해왔는지

《구경탕》이 되고 연약한 《민생》 한데 이걸 어떡합니까. 흑시나가 역시나가 되었습디다.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니 먹다남긴 음식찌꺼기들을 마구 담은것같기도 하고 다른 음식점의 오물들을 받아 섞은것같기도 한게 대번에 구역질이 구역구역 울리입니다.

석열탕의 기본료리감들에서 《정》는 어떻게나 혐하게 깔짚을 당했는지 형태도 없는 《망탕》이 되고 《외교》라는것은 원체 선도가 나쁜 것을 어디서 험잡으로 구입해왔는지

《구경탕》이 되고 연약한 《민생》 한데 이걸 어떡합니까. 흑시나가 역시나가 되었습디다.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니 먹다남긴 음식찌꺼기들을 마구 담은것같기도 하고 다른 음식점의 오물들을 받아 섞은것같기도 한게 대번에 구역질이 구역구역 울리입니다.

석열탕의 기본료리감들에서 《정》는 어떻게나 혐하게 깔짚을 당했는지 형태도 없는 《망탕》이 되고 《외교》라는것은 원체 선도가 나쁜 것을 어디서 험잡으로 구입해왔는지

서까래보다 먼저 썩은 기둥을 교체해야...

얼마전 윤석열역적도가 《대통령실》기구를 일부 개편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고 한다.

말썰도 많고 그만큼 비난도 많았던 《대통령실》을 개편했다지만 력대 최악의 통치취기에 시달리고있는 정치초년생이 고안해낸 눈가림식의 궁여지책이라는것은 두말할것이다.

이러한 남조선민심의 말대로 《흑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얼마전 윤석열역적도가 《대통령실》기구를 일부 개편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고 한다.

말썰도 많고 그만큼 비난도 많았던 《대통령실》을 개편했다지만 력대 최악의 통치취기에 시달리고있는 정치초년생이 고안해낸 눈가림식의 궁여지책이라는것은 두말할것이다.

종자시 산송장을 부르는 까옥소리

분계선너머 어디선가 풍겨오네 불쾌한 송장배 곁에서 울리는 까옥소리 그칠새없어

웬 일인가 알아보니 바로 그렇지 미국 하베미알에 꼬리치는 삼살개 동족에겐 약성비루스 들이밀고 북침전쟁 먹장구를 불어오고

분계선너머 어디선가 풍겨오네 불쾌한 송장배 곁에서 울리는 까옥소리 그칠새없어

웬 일인가 알아보니 바로 그렇지 미국 하베미알에 꼬리치는 삼살개 동족에겐 약성비루스 들이밀고 북침전쟁 먹장구를 불어오고

분계선너머 어디선가 풍겨오네 불쾌한 송장배 곁에서 울리는 까옥소리 그칠새없어

웬 일인가 알아보니 바로 그렇지 미국 하베미알에 꼬리치는 삼살개 동족에겐 약성비루스 들이밀고 북침전쟁 먹장구를 불어오고

종자시 산송장을 부르는 까옥소리

분계선너머 어디선가 풍겨오네 불쾌한 송장배 곁에서 울리는 까옥소리 그칠새없어

웬 일인가 알아보니 바로 그렇지 미국 하베미알에 꼬리치는 삼살개 동족에겐 약성비루스 들이밀고 북침전쟁 먹장구를 불어오고

분계선너머 어디선가 풍겨오네 불쾌한 송장배 곁에서 울리는 까옥소리 그칠새없어

웬 일인가 알아보니 바로 그렇지 미국 하베미알에 꼬리치는 삼살개 동족에겐 약성비루스 들이밀고 북침전쟁 먹장구를 불어오고

분계선너머 어디선가 풍겨오네 불쾌한 송장배 곁에서 울리는 까옥소리 그칠새없어

웬 일인가 알아보니 바로 그렇지 미국 하베미알에 꼬리치는 삼살개 동족에겐 약성비루스 들이밀고 북침전쟁 먹장구를 불어오고

분계선너머 어디선가 풍겨오네 불쾌한 송장배 곁에서 울리는 까옥소리 그칠새없어

웬 일인가 알아보니 바로 그렇지 미국 하베미알에 꼬리치는 삼살개 동족에겐 약성비루스 들이밀고 북침전쟁 먹장구를 불어오고

분계선너머 어디선가 풍겨오네 불쾌한 송장배 곁에서 울리는 까옥소리 그칠새없어

웬 일인가 알아보니 바로 그렇지 미국 하베미알에 꼬리치는 삼살개 동족에겐 약성비루스 들이밀고 북침전쟁 먹장구를 불어오고